

# 2021 하계 이화봉사단 해외교육봉사 (캄보디아/베트남) 비대면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봉사팀



2021. 8

---

김\*희

---

저는 패션디자인전공 4학년 김주희입니다. 먼저 학교를 졸업을 하기 전 이화봉사단이라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졸업 후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직업을 가지든 간에 그 직업을 통해 사회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마음에 가지고 나서, 부끄럽게도 한 번도 아동을 돕는 일, 혹은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동을 돕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히 해외 이화봉사단을 모집하는 게시 글을 보게 되어 정말 기쁜 마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화봉사단에서의 경험은 제 비전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하기 전 노력과 시간을 쏟아 아이들을 위한 봉사를 한 것이 또 다른 아이들을 향한 일을 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해외 아동들을 실제로 만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많은 수의 아이들이 저희 팀이 만든 교재와 영상을 가지고 배울 것이라는 생각에 책임감을 가지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업에 있어서도 할 일이 많았고, 이화봉사단 팀원으로서 할 일이 많았지만 교안, 영상, 물품리스트 작성 등의 단계들을 팀원들과 하나씩 해낼 때마다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봉사단을 하며 서로를 위해주는 팀원들을 만나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팀 속에서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저는 팀 내에서 항상 소극적이고 시키는 일만 하던 학생이었는데, 우연히 이화봉사단 미술팀의 리더를 맡아 책임감 있는 태도에 대해 더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한 리더였지만, 제가 리더를 끝까지 해낼 수 있게 해준 성실하고 배려심 넘쳤던 미술팀 팀원 한 명 한 명에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 조\*은

이화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그간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서 이화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만한 활동을 거의 해보지 못한 것 같다.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며 대학 생활을 했던 것 같다. 그러던 와중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봉사 시간을 채워야 했던 때 이후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며, 이화봉사단 활동을 했던 친구들에게 묻기 시작했다. 저마다의 뿌듯함과 추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이화봉사단에 지원해보아야겠다는 결심이 빠르고 쉽게 섰다.

다행인 점은 봉사 내용과 그간 아동 과외를 했던 점이 비슷해서, 억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잘 끝마칠 수 있을 것 같았다. 딱히 준비할 것도 없이 지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게 아이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지원서를 작성한 결과로 봉사단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비대면 봉사라고 해서 솔직히 조금 아쉬웠던 것 같다. 코로나 19로 제약이 생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속상하고, 그에 적응해가는 우리가 신기하기도 하다.

활동 끝자락에 학교에 나가서 해야 했던 활동을 제외하면 봉사단 팀원들과는 온라인 안에서 밖에 만나지 못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한 학기가 넘는 시간동안 봉사단 팀원들과 계속 소통하며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어 유대감과 뿌듯함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나가 팀원들과 짝 교육 프로그램에 맞는 물품들을 패키징하는 과정에서 봉사단 활동이 마무리되었다는 생각으로 2시간이나 소모된 고되다면 고되다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즐겁게 끝마칠 수 있었다. 물품과 워크북을 받고 즐겁게 활동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봉사단 활동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면서, 조금 더 보완하면 좋았겠다하는 아쉬움도 남았다.

누군가의 교육을 위해 계획을 짚다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매번 깨닫는다. 특히 영어나, 내가 잘하는 미술 과목이 아닌 낯선 체육이라는 과목이라서 처음에는 막막했으나 나를 잘 풀어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짝 교안은 첫 번째 스트레칭 부분인데,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시작하고 스트레칭을 자주자주 하게 되면서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며 찌뿌둥한 몸 컨디션도 시원하게 풀어주는 느낌이 좋아서 베트남, 캄보디아 아이들도 자주자주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교안을 짜게 되었다.

모두가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서로 연대하고, 사랑을 통해 난관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더더욱 느껴지는 요즘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화봉사단 활동을 했고, 이를 통해 뿌듯함을 느낀다. 마지막 학기 직전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경험을 준 이화에게도 감사함을 느낀다.

## 최\*은

이화봉사단은 새내기 시절부터 가장 하고싶던 활동 중 하나였다. 봉사 경험이 많지 않아서 나중에 지원해야지 하고 미루던게 3년이 되어 올해 여름에 참여하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에 나가기 어려워졌을 때 해외 봉사는 언제쯤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다. 향후 몇 년은 직접 해외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울 테니 비대면으로라도 꼭 참여해야겠다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사실 지원서를 쓸 때도 자신있진 않았다.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을지 걱정했었다. 하지만 올해는 꼭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고, 베트남/캄보디아 한국문화팀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전공 때문에 교육 봉사를 진행해본 적이 있었지만 그건 한국에서, 직접 만나서 했던 활동이었다. 그래서 비대면 교육 영상을 만드는 것이 처음엔 다소 어렵게 느껴졌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걱정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 수업 주제를 정하는 것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았다. 아이들이 수업이 끝난 후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더운 날씨를 고려해서 부채 만들기 수업을 준비했다. 여러 준비물이 필요해 예산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는데 다행히 예산이 남는 다른 팀에서 구매해주는 것과 같은 해결책이 있어 원하는 준비물을 다 구입할 수 있었다. 전에 교육 봉사를 해보았던 경험은 교안을 작성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다. 평소 말하는 것보다 더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었기 때문에 교안도 그렇게 작성했다. 내용을 어렵더라도 정확히 전달하려 하기보다 어려운 내용은 빼고 쉬운 말로 채우려고 노력했다. 한국문화 수업이지만 교안을 준비하면서 자료 조사를 충분히 해야했고,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내가 특별히 맡은 일은 교안 번역이었다. 영어에 아주 자신 있진 않지만 진로 특성상 앞으로 영어를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맡았다. 영어 교안 역시 쉬운 말로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번역 경험이 많지 않아 어느 정도 의역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됐지만 최대한 원문의 느낌을 살리면서 쉬운 말로 바꾸려 했다. 영어 번역을 맡은 것이 나에게서는 하나의 도전이었는데, 잘 마쳐서 다행이었고 영어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다.

사진을 찍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수업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가 가장 걱정이었다. 스튜디오도 처음 가봤고 이런 영상을 찍어보는 것도 처음이라 많이 쑥스러웠다. 오히려 만나서 수업을 하는 것보다 아이들 없이 영상을 찍는 것이 더 민망하고 힘들었다. 실시간 강의를 선호하시는 교수님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다. 예시를 보여주고 만드는 과정을 찍기 위해 직접 부채 하나를 꾸며야 했다. 오랜만에 하는 미술 활동이라 재밌었다. 색종이를 자르고 그림도 그리니 어릴 때 생각도 났다. 수업을 들을 아이들도 하면서 재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많은 일을 했지만 팀원들이 없었다면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각자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수업 내용을 정할 때부터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서로 피드백도 해주며 보완해나갔다. 워크북 제작, 영상 편집, 회계, 일정 조정 등 해야할 일이 많았는데 각자 맡아서 한 덕분에 무사히 기한 내에 완성할 수 있었다. 성적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모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멋있었다. 이화 안에서도 봉사 정신이 있는 멋진 벗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직접 만나서 함께 활동하는 시간이 적어 아쉬웠다. 기회가 된다면 직접 해외에 나가 벗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김\*지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베트남, 캄보디아 아이들과도, 팀원들과도 대면해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아쉬웠다. 하지만 그만큼 멀리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며, 배려하며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었다고 생각한다. 원활한 비대면 소통을 위해 기술적인 부분에서 수업 동영상 제작, 게시판과 단체, 팀별 채팅방 활용, 온라인 미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각자 미술 수업 아이디어를 몇 가지씩 생각해본 후, 팀원들과 온라인 만남을 가졌다. 첫 시작점이 된 온라인 만남에서 팀원들이 모두 여러 개씩 좋은 의견을 내서, 그 중 어떤 것을 채택해야 할지가 가장 고민이 될 정도였다. 그렇게 성실하고, 적극적인 팀원들과의 첫 만남 느낌 그대로, 우리 조의 활동은 마무리까지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다. 의견을 다듬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아이들이 무엇을 배워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아이디어를 더해갔다.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주제 선정 및 수업 내용 구상, 교안 작성, 수업 대본 작성, PPT 제작, 동영상 제작 및 편집, 워크북 제작 (영어, 베트남, 캄보디아어), 활동 준비물 선정 및 구매, 회계 정리, 준비물 수량체크 및 패킹 등의 업무를 맡았다. 학기와 병행하다보니 어려움도 있었으나, 미리 마감일과 업무 단계를 계획하고, 팀 안에서 각자의 업무를 적절히 분담하여 배분하고, 맡은 바에 열심히 임해주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팀원들에게도 매우 고맙고, 좋은 팀원들을 만나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었다. 대면 업무에서 팀원들을 봤을 때도 오래 만난 친구들처럼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재미있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중에서도 워크북 대표를 맡아 각 팀의 워크북 대표들과도 협업을 진행했는데, 워크북 형식 통일, 업무 분담(워크북에 사용할 그림 제작, 배치) 등을 의논하고, 세부 내용을 다시 각 팀으로 전달했다. 전체 진행 일정에 맞춰, 워크북 팀 안에서의 새롭게 세부 일정 계획을 세워 진행했기에 더욱 순조롭게 진행했다. 제작 시, 관련 있는 도안 선정 및 디자인, 각 그림과 도안 등을 다른 팀들과 통일된 곳에 배치하는 수작업이 어려웠으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서로의 해결책을 공유하고, 도와주고, 새롭게 공통 기준을 정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업무 속도가 빨라졌다. 적극적으로 임해준 각 팀의 워크북 대표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고, 함께한 모든 팀원들과 일하며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를 새롭게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업무가 여러 전공 분야 사람들과의 협업과 분담, 소통과 피드백,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으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배웠다.

수업 내용 구상 전 준비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미술 교과 내용(다양한 미술 기법 등)을 조사하고, 전공수업 등에서 실제로 내가 해보고, 배웠던 내용들을 연계하여 응용했다. 이전 봉사단의 활동 내용과 연계하기 위해 고민했고, 미술 놀이 소개 콘텐츠를 참고하여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베트남, 캄보디아 학생들이 재미있게 즐기면서, 직접 다양한 활동을 하며 배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때, 이해도를 높이는 그림과 직접 시연한 동영상, 사진 등을 PPT 및 동영상, 워크북에 제공했다. 점묘화, 프로타주, 데칼코마니 등 각각의 다양한 미술 기법들을 사용한 세부 활동을 선정할 때, '나'와 나의 주변에 대해 돌아보고, 표현해볼 수 있도록 하나의 주제와의 연계성을 고민하는 과정이 어렵기도 했지만, 최종 완성 후에는 큰 보람을 느꼈다. 교안의 학습 목표에서 지식, 기술, 태도를 골고루 고려했고, 도입에서는 주의집중을 돕도록 학생들과 관련 있는 이야기, 관련 동영상 등 매체 활용을 고민했다. 베트남, 캄보디아 어린이들과 직접 보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지만, 계속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돌아보며 흥미와 배움을 고민했기에, 활동이 진행될수록 마음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

**최\*지**


---

이화를 떠나기 전, 학교에서의 배운 지식을 사회에 나눠보고 싶어 해외 이화봉사단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악 전공이지만, 평소에 음악을 주제로 봉사를 해 볼 기회가 별로 없어 아쉬웠습니다. 따라서 해외 이화봉사단 음악팀에서 수업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했을 때는 봉사를 위해 굉장히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보였기에 과연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해나갈 수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평소 주도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팀장으로서 우리 팀을 잘 이끌어서 이 많은 것을 모두 제대로 끝낼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며 부담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주신 팀원들 덕분에 무사히 동영상과 워크북, 교안을 완성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교직을 이수하고 있어 평소 음악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해외 교육 봉사이다 보니 우리나라의 환경과는 다른 곳에서 수업을 듣게 될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사회적, 교육적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일 것이기에 이런 것은 학생들이 너무 지루해할까, 어려워할까 고민하며 수업 내용을 구성해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계획했지만, 비대면 상황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음악에 더 흥미를 갖고, 더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 팀원들과 수업을 만들어가니 막막하기만 했던 것에서 조금씩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지만 주어진 수업 시간이 적어 조금 아쉽기도 했고, 비대면 봉사라서 학생들과 실제로 소통하며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들이 모여 마지막에 다 같이 모여서 성공적으로 수업을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화에서 생활한 지난 시간 동안에는 대학생이라는 신분에 맞게, 학과 공부에 충실히 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화봉사단을 하며 저에게 당장 닥친 것에서 잠시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현실의 문제들을 고민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해외 이화봉사단을 시작할 때는 무사히 봉사를 끝낼 수 있을까, 설렘보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팀원들과 열심히 만든 수업, 워크북, 동영상 등을 보니 짧은 기간이었으나 많은 것을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비대면 봉사이기에 팀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친분을 쌓을 기회가 별로 없어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한 학기동안의 이화 봉사단 활동은 힘든 만큼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학생들 모두 저희의 수업에 즐겁게 참여하고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경
 

---

나는 4학년이지만 학교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은 이화봉사단 활동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많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컸었다. 그렇지만 다행히 팀원분들도 다들 너무 착하신 분들이었고, 배려심 있는 분들이었기에 팀원들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하는 일 없이 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활동을 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정말로 아이들이 있는 나라에 가서 함께 마주 보며 이야기하고, 유대감을 쌓으면서 활동을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이 팀원분들과도 더 오래 인연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 또한 컸다. 언젠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 걱정이 되지 않을 때 즈음엔 꼭 해외로 봉사하러 가봐야 겠다는 목표도 생겼다.

활동을 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점을 꼽으라면 나는 편집 담당이었기에 편집에 대해 말하고 싶다.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이렇게 세 나라의 언어를 총 5명의 영상을 편집하고, 캄보디아어는 음성녹음 파일까지 편집해야 해서 사실 조금 힘들었지만 시간이 촉박하진 않았기에 많이 힘들진 않았다. 한 명이 아닌 두 명에서 했다면 덜 스트레스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영상 편집하는 과정을 몇 번 반복 하다 보니 편집하는 속도가 처음보다 훨씬 빨라지기도 해서 시간이 많이 절약되기도 했다. 편집을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나할까.

마무리하자면, 다음에도 이화봉사단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땐 지금보다 더 여유롭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 새로운 인연을 쌓는 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나와는 다른 전공, 과의 사람들과 인연을 쌓고,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어 좋았다.

---

**김\*정**


---

처음에는, 비단 내가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만 생각하여 이화 봉사단에 지원하였다. 특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직접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관심이 많은 분야인 공공외교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문화를 올바르게 재밌는 방식으로, 단순히 유럽과 같은 서양 국가 뿐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제3 세계 국가의 아이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으로 다가온 활동이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몇몇 봉사활동들과 확실히 달랐던 점은, 나 또한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인 것 같다. 특히 처음 교안을 짜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가래떡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모양인지를 언급하지 않고 가래떡이라는 표현을 그냥 사용했다. 이처럼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아이들이 가래떡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너무 당연히 알고 있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생소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 깨닫게 되고, 나아가 그들과 시각을 같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던 시간이었고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단순히 문화권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어린 아동들이 가진 시각에 대해서도 함께 조율할 수 있었다. 특히 워크북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설명해주고자 많은 문자, 글자를 넣었던 것이, 되려 문자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복잡한 책처럼 보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한국 문화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좀 더 넓고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방식과 시각에 대한 교훈을 얻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내용적 측면이 아닌 팀 활동으로 진행했다는 측면에서 역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팀장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팀장이라는 역할도 팀을 이끌어나가는데 중요하지만 좋은 팀원들이 받쳐 주어야 되어야 비로소 팀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던 것 같다. 사실 처음에 역할분담을 할 때 우리 팀에는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팀원이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서로가 조금씩 도와주기로 하면서 끝끝내 역할 분담을 완료하였고, 실제로 영상 촬영을 다 진행하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그 팀원을 도와주었다. 그 덕분인지 생각보다 수월하고 빨리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점도 있다. 한국문화라는 주제를 처음 다루었고, 그 대상이 아이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조금 더 시의성 있는 주제를 많이 다루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물론 대상이 다른 문화권의 아동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한국에서 유행하는 달고나 커피 만들기 같은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실효성의 측면에서는 어렵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서서히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시의적인 문화에 대해 알린다면 그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해 더 큰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다.

물론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마주하고 그들의 체험을 직접 도우며 그들의 교육적 측면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접 접촉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아가서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의 활동이자 봉사자였다고 생각한다.



---

 김\*빈
 

---

이화 봉사단 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이파리가 수줍은 초록빛을 띄는 초봄이었는데, 벌써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이 왔다. 숨 가뻐던 이화 봉사단 활동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어느덧 활동 소감문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게 새삼 신기하고 또 감사하다. 이 소감문을 통해 이화 봉사단 활동을 되짚어 보며 배우고 느낀 점을 성찰하고자 한다.

이화 봉사단 활동을 처음 신청할 때, 지원서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 “이화 봉사단에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나는 막힘없이 답변을 술술 적었다. 나는 1,2 학년 때 학교에 정을 못 붙이고 많이 방황했었다. 열등감, 패배감, 우울, 분노를 매일 심하게 겪었고 이러한 감정을 잊으려고 미친 듯이 바쁘게 살았다. 수업을 듣고, 불티나게 과제를 하고, 알바를 뛰고, 과외를 하고... 정말 바쁘게 지내는 도중 어느덧 내가 졸업을 앞둔 3학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학생으로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대학생답게’ 무언가 즐긴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 남지 않은 대학생으로서의 시간 동안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 대학생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한 열정과 패기로 도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나는 이 내용을 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적었고 감사하게도 합격하여 이화 봉사단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화 봉사단 활동을 시작하면서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 교안을 짜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다. 열심히 연구하고 고안하여 활동을 구성해도 여러 이유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얻었고, 컴퓨터를 가뜰이나 잘 못하는데 워크북 제작을 맡게 되면서 계속 헤매고 킁킁대었던 것 같다. 그리고 계속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생겨서 여러모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동료 분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서로 으싸으싸 동기부여를 하면서 난관들을 하나씩 넘어갔다. 활동 하면서 좋은 동료 분들도 알게 되고, 컴퓨터 실력이 조금은 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고민 없이 동영상 촬영하는 시간이었다고 답할 것이다. 처음으로 동료 분들을 실물로 만나 배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수도도 떨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겁게 동영상을 제작했다. 나는 체육팀이어서 몸소 워크북의 신체 활동들을 보여 주어야 했는데 생각보다 활동이 까다로워서 NG도 많이 났지만 팀원 분들과 즐겁게 웃으며 넘겼던 것 같다.

이후 워크북 담당으로서 마지막 수정, 보완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마무리 단계를 거쳐 드디어 이렇게 이화 봉사단 활동을 정리하는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생각해 보니 정말 숨 가쁘고, 바쁘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좋은 동료분들과 지도 선생님 덕분에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활동을 통해 배려와 봉사, 나눔의 정신을 배우고 좋은 동료 분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다. 이화 봉사단 활동에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김현빈이 되겠다.

---

**김\*빈**


---

꿈에 그리던 대학에 입학하고 뭐든 다 해낼 것만 같았던 1학년 새내기 시절, 마냥 놀기만 바빠서 학교에서 주최하는 것들을 알지도 못 했을뿐더러 시도해 보지도 못 하였다. 정신없이 2년을 보내고 3학년이 된 지금에서야 학교 행사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과 선배님께서 이화 해외 교육봉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해보아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 RCY 단장으로서 봉사 동아리를 하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 단단한 각오와 함께 지원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하계 이화봉사단으로써 활동 할 수 있게 되었다.

스포츠과학과가 나만 있어서 그랬는지 체육팀으로 배정받게 되었다. 열정을 가득 안고 오티를 듣게 되었고, 팀별 활동을 하려고 역할을 정하게 되었는데 내가 팀장으로 선정되었다. 솔직히 말하면, 직접 가서 봉사활동 하는 것을 기대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지만, 교안 작성하는 것부터 물품리스트 작성 그리고 직접 패킹까지 하는 모든 과정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 교안을 작성할 때 막막했다. 비대면인 신체활동이고, 여러명과 같이 활동을 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 것 같아 여러 가지의 것들을 고려하여 교안을 작성해야했다. 그래서 몇 번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여 최종 교안이 완성되었다. 교안을 작성하고 나니 반은 한 것 같아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이후 물품리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팀원이 많이 도와주어 쉽게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비록, 5명의 팀원 중 한 분이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인해 중간에 활동을 중단하게 되어서 너무 안타까웠다.

봉사 패킹까지 마친 후 느낀점은 한 명에서 하지 못 하는 것을 여러명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구나 라는 뿌듯함이었던 것 같다. 팀원들이 다들 배려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화 해외 교육 봉사를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해외 교육 봉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패킹 작업이었던 것 같다. 최종 작업을 하면서 직접 개수를 맞추어 하나씩 패킹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제 다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 끝에 서로 도우며 교안 작성부터 다양한 활동들을 팀원들이 힘을 모아서 헤쳐나갔던 것 같다. 이화봉사단 활동을 통해 연대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 이런 뿌듯하고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을 남겨준 이화여대가 자랑스롭다.

## 반\*영

이화봉사단은 나에게 의미 깊은 활동이다. 나는 국내 이화봉사단 활동을 시작으로 총 3차례 이화봉사단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매 활동마다 대상자 간에 그리고 이화봉사단원들 간에 많은 추억들을 간직했기 때문에 졸업 전 마지막 활동으로 해외 봉사를 해보고 싶었다. 따라서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나는 매우 기뻐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번학기 역시 봉사활동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점이었다. 지난 이화봉사단은 비대면으로 진행된 첫 학기였다. 이에 따라 팀원들도,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혼돈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은 다소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선생님께서도 명확하게 역할 분담을 해주시고, 가장 고학년을 팀장으로 배정함으로써 팀활동의 진행이 더 매끄럽게 된 거 같다.

한국문화라는 주제 하에 어떤 주제로 수업을 해야 아이들이 재미있게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였다. 팀원들끼리 각각 아이디어를 내어 투표를 하였고 나는 그중 전통놀이를 맡게 되었다. 주제 선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우리 팀원들은 한국 문화를 과거의 한국 문화와 전통에 초점을 두었는데 선생님께서는 현대판을 생각하셨던 것이다. 결국 우리는 과거와 현대를 잇는 방식으로 교안을 수정하였다. 사실 이 부분에서 드는 아쉬움은 교안을 짜기 전에 한국문화를 현대판으로 생각했더라면 21세기의 한국의 모습을 더욱 잘 전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아이들은 현 시점 한국의 아이들이 어떤 놀이들을 하는 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우리 조는 다소 과거에 초점을 둔 점이 아쉬웠다.

나는 아이들이 한국의 놀이 문화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직접 체험해보는 방향으로 교안을 작성하였다. 처음에는 다양한 놀이들을 설명해주고 싶었지만 이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다소 지루할 수도 있고, 직접 해 보는 것이 아니라면 와닿을 거 같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퀴즈 형식을 택하였다. 이렇게 간단히 한국 문화를 설명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딱지치기에 대해 소개를 했다. 처음에는 제기차기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시중에 판매를 하는 제기들은 불량인 경우도 많았고 아이들이 이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수반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딱지치기의 방법을 배우고 현대판 딱지를 이용하여 직접 놀이를 해 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아쉬운 점은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것이 아니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잘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점이었다. 선생님들께서 딱지치기를 모르시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실 수 있을지, 아이들이 차분하게 게임을 할지 걱정이 들었다.

비대면 봉사였음에도 팀원들끼리 만나서 영상 촬영한 점은 무척 좋았다. 이는 유일하게 팀원들끼리 협업을 하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비록 두 번밖에 못봐서 아쉽기는 했지만 수업 촬영을 같이 한다는 데에는 큰 의미가 담겨있는 거 같다. 지난번 활동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촬영까지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영상을 통일 시키는 것도 어려웠으며 영상에 애정을 담는 것도 그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충분한 토의 후에 완성된 교안으로 일정한 포맷에 따라 함께 촬영을 해서 호흡도 더 잘 맞고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다.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 대상자들과 봉사팀원들 같다. 이번에는 아쉽게 대상자들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팀원들을 잘 만난 거 같아서 너무 감사했다. 각자가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줬으며, 비대면 상황임에도 줌으로 회의를 하고 촬영날 모두 오는 등 상황을 최대한 극복해 보려는 노력들을 해 주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기회가 된다면 졸업을 하기 전에도 그리고 졸업 후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 봉사의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기 때문이다. 봉사가 일시적인 활동이 아닌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

 오\*돌
 

---

입학할 때 자기소개서에 썼을만큼 정말 하고싶었던 이화봉사단.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봉사활동을 기획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모집 공고가 뜨자, 설레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썼고 감사하게도 합격하여 이화봉사단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비대면으로 채울 수 있는 장점들이 마음껏 발휘되었던것 같다. 직접 가서 얼굴을 마주하고 시연하지는 못하더라도, 워크북과 영상을 통해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팀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주제에서부터 세부적인 활동들까지를 같은 팀원들끼리 정하며 교안을 작성했다. 그리고 나는 우리팀 내에서 워크북 담당이어서 음악팀 내지를 제작했고, 그리고 워크북 표지도 담당해서 제작했다.

처음 줌으로 회의를 했을 때부터 느꼈지만, 우리 음악팀은 팀워크가 참 잘 맞았다. 모든 팀원분들이 언제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고, 피드백도 빠르게 해주셔서 전반적으로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교안을 제작할 때에는 현지 선생님께서 이 교안과 영상만 보시고도 수업을 잘 진행하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다. 작은 디테일들도 꼼꼼하게 서로 살펴주며 교안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수업 시연 영상을 찍을 때 학생이 실제로 내 앞에 있지는 않지만, 학생이 내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시연하였다. 여러 번 연습해가며 외웠는데, 막상 찍으려니까 그곳의 자동 촬영 기기들을 보며 '드디어 그동안 준비한 수업을 찍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긴장이 되어 여러 번 찍게 되기도 했다. 한편 워크북 표지를 담당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어린 학생이었을 때의 나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나는 어렸을 때 교과서 표지가 마음에 들면 책에 관심이 가고 나도 모르게 책을 한 번이라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학생들도 책에 애정을 갖게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표지 만드는 것을 담당하게 되었다. 막상 표지를 제작하려고 보니 어떤 것을 담으면 좋을지 고민이 되었다. 단순히 보기에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한국문화팀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담기면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각 팀의 교안들을 확인해서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들(음계 무지개, 나비를 그리는 아이, 줄넘기하는 아이, 그리고 단청무늬)을 그려 넣게 되었다. 이렇게 교안, 시연 영상, 워크북까지 처음부터 기획하며 제작할 수 있어 기뻐다.

4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차근차근 진행해왔던 이화봉사단이 이제는 마무리하는 단계라니! 아쉬우면서도 뿌듯하다. 학생들이 수업 영상과 워크북을 통해 즐겁게 배울 수 있다면 기쁠 것 같다.

---

**배\*서**


---

해외봉사활동은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고 내가 다른 조원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좋은 팀원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바쁜 와중에도 학교 수업, 과제, 봉사 활동들을 병행하는 것이 저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고 제가 질문이 있거나 작업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피드백을 주시는 저희 팀 조원들에게 감동을 받아서 팀에 도움이 되고자 더 열심히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이화여대 하계 해외 봉사활동은 제가 직접 무언가를 계획하고 만들어보았던 자율적인 성격을 가진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같은 조의 다양한 팀원들과 토론하며 이야기하며 더 좋은 퀄리티의 활동을 만들어 나가던 시간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 OT에서 담당 선생님께서 한 학기간의 여정을 설명해주실 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각자 맡은 바 업무를 나누고 작업들을 차근차근 해내다보니 어느새 저희가 완성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는 점이 너무 뿌듯합니다. 물론 직접 해외에 나가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수업을 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도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다른 의미로 저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접 누군가를 대면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형태로든 봉사 활동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

오\*경

---

저는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20학번 오민경입니다. 한국에서 비대면으로도 해외의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해외봉사단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화봉사단 자체가 저에겐 처음이라, 합격하고 나서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긴장과 걱정도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팀원들을 만나 무사히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학기 중에 봉사단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과제와 시험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교안 내용을 구상하고, 교안을 영어로 번역하고, 워크북에 들어갈 자료를 찾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참여하는 팀원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자극 받고 도움 받아 이렇게 끝까지 봉사단 활동을 끝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사히 끝냈다는 사실이 저를 매우 뿌듯하게 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누구 가르쳐본 적도 없고, 교육과 관련된 학과도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였습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아이들을 위한 영상을 찍을 때도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하다보니 익숙해졌고, 마지막에는 팀원 모두가 진짜 선생님처럼 무사히 잘 해낸 것 같습니다. 학기 중에 봉사단 활동을 한다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냈다는 뿌듯함이 존재합니다. 다음에도 꼭 봉사단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

**최\*빈**


---

2020년 겨울 국내 이화봉사단을 한 후, 해외 봉사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해외 이화봉사단을 신청했습니다. 비대면이라 시간, 공간의 제약이 크지 않아 용기를 내 신청했고, 다행히도 해외 봉사단에 뽑혀 새로운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국내 봉사보다 힘들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우선 국내봉사단보다 활동을 일찍 시작해 학교에 다니면서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물론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은 없었지만 팀별로 수업 내용도 짜고, 워크북도 만들고, 예산을 고려해 수업을 구성해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쁘게 봉사활동과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나름 저만의 노하우도 생기고 시간을 잘 쪼개서 쓰는 법과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전 학기보다 성적이 떨어지긴 했지만,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힘든 것이 있었다면 영상을 편집하고 영어 자막, 베트남어 자막, 캄보디아어 자막과 더빙 영상을 만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동계 국내 이화봉사단에서 동영상 편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제가 영상을 편집했었는데 그때 나름대로 편집이 재밌고 쉬운 것 같아서 이번에도 지원자가 없길래 제가 영상 편집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편집뿐만 아니라 3개 국어 자막을 달아야 하고 거기에 캄보디아로 가는 영상에는 더빙까지 넣어야 해서 종강한 이후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혼자 감당하기에는 양이 꽤 많아서 부지런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저의 한계를 깨고 더 앞으로 나아간 것만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없었을 것만 같은 일을 결국에는 해냈을 때 쾌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영상 편집을 다 끝내고 사이버 캠퍼스에 영상을 올렸을 때 속이 후련하면서 '내가 정말로 해냈구나!'라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2021년 하계 해외 이화봉사단을 하면서 저 스스로 많이 성장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팀원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제가 편집으로 힘들어할 때도 마치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 맡은 부분을 넘어서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면서 했기에 팀 내 불화도 없고 다들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좋은 추억과 인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팀장으로서 미술팀을 하나로 이끌어주고 가장 많이 애써준 주희 언니, 워크북 만드느라 엄청나게 고생한 예지 언니, 영어 번역에 힘써준 현서, 회계와 물품 구매 꼼꼼하게 해준 아영까지 모두 고맙고 덕분에 즐겁게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놈펜, 씨엠립,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이 저희가 몇 달간 열심히 만든 수업 재밌게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유년 시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보내고 나중에 커서 행복한 자신만의 인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화봉사단에 다시 참가하고 싶습니다. 몇 개월간 정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

 홍\*연
 

---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코로나 19 확산으로 제대로 된 대학생활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상황과 현실만을 탓하며 시간만 허비한 날도 많았다. 이렇게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치 있는 활동들을 몇몇 찾아보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화봉사단 해외교육봉사단이었다. 비록 직접 해외로 나가서 지식을 전달해주고 활동을 진행하며 교류를 할 수는 없어도 동영상과 워크북을 직접 제작하여,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한국을 알려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다.

예전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짧게 한국을 소개하는 물품을 제작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봉사분야는 올해 신설된 한국문화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미 학생들이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있기에 심화 과정을 구성해야 하는 다른 과목들과는 달리, 한국문화는 처음부터 교안을 짜야했기 때문에 팀원들과 여러 번 회의를 하면서 어느 부분이 매력적으로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인지 의견을 나누었다. 모든 조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쉽게 의견을 간추릴 수 있었다. 이렇게 외국인과 나이가 어린 학생의 입장에서 음식, 의복, 명소, 전통놀이 등 한국적인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5주차 수업의 틀을 마련한 뒤에는 효과적이고 재미있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교안도 직접 작성하였다. 단순히 설명글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을 모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여러번 교안을 읽어보고 수정해가면서 한국문화 수업의 전체적 통일성과 각 차시별 독특함을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나는 마지막 차시인 한국명소 부분을 맡았는데 한국의 관광 지도를 참고하면서 대표적인 문화 및 자연 명소인 경복궁과 제주도를 소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남산타워, 한강, 해운대 등 다양한 후보 중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어디를 가장 와보고 싶어하는지 검색해가면서 최종 명소를 추려냈고, 그 과정 속에서 평소에는 잊고 있었던 한국의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교안을 작성할 때는 쉬운 언어를 사용해서 장소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설명하고자 했고, 지역적 특색을 살린 활동으로 단청 색칠하기, 유채꽃 엮서에 편지 쓰기를 수업 내용에 포함시켰다. 다른 차시에 비해서 학생들이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이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모든 팀원들이 공통으로 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조장, 회계, 워크북, 번역, 동영상 편집 등 다른 봉사분야의 부원들과도 협력 또한 필요했는데, 이 과정 또한 기억에 많이 남는다. 워크북 담당자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부분들에 디자인이 필요한지 의논하고 역할을 분배한 뒤, 글꼴, 자간, 여백 등 사소한 부분까지 맞춰가고, 여러번의 피드백을 통해 완성도 있는 워크북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주어진 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수업의 목표를 제시하는 처음부터 끝인 영상 촬영까지 팀원들과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갔다는 점이 가장 보람차게 느껴진다. 또한 10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들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번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비록 코로나 19로 인해서 오프라인 활동이 많지 않아 아쉬웠지만, 소통이 적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교육의 혜택으로 받은 지식들을 상대적으로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사람과 나눔으로써 의미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직접 해외로 나가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해보고 싶다.



---

 김\*은
 

---

해외 이화 봉사단은 내가 입학하기 전부터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었다. 직접 해외에 나가 아이들에게 교육봉사를 하는 게 나의 꿈이기 때문에 정말 바라왔던 활동이었는데,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나 기뻐다. 이번 학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 해외에 가서 봉사하지는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직접 교안을 작성하고, 워크북을 제작하고, 수업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교안을 작성하는 내내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울까를 계속 생각했다. 나는 이번 연도에 새로 생긴 한국문화팀 소속이어서 참고할만한 이전의 수업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지만, 아이디어가 넘치는 팀원들이 있던 덕분에 봉사활동이 생각했던 것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한국문화 수업으로 음식, 의복, 전통놀이, 부채, 명소를 주제로 설정하였고 그 중에 나는 한국의 전통의복인 한복을 맡게 되었다. 한복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복을 입고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내었고, 전통 한복만 설명하는 것이 아닌 개량 한복을 설명해주어 현재도 한복을 입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기로 하였다. 사실 수업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과연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었다. 다른 주제에 비해 '한복'이라는 주제는 아이들에게 잘 와 닿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이 직접 입어보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없으니 더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업 첫 부분에서 한복을 직접 입고 인사를 하는 수업 영상을 찍었고, 수업 내용 중에 아이들이 여러 한복 사진을 보고 자신만의 한복을 꾸밀 수 있는 색칠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처음에 팀원들과 역할을 분담했었는데, 나는 영상제작을 맡게 되었다. 먼저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편집하였고, 베트남 자막을 넣고, 캄보디아 자막을 넣고, 캄보디아 더빙을 넣었다. 원래는 영문 자막도 넣어야 하지만 팀장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일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나는 영상을 다루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영상을 제작하는 것부터 막막했지만, 팀원들이 합치기 쉽도록 수업 영상을 잘 찍어준 덕분에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었고, 자막은 말 한 마디에 맞추어 넣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하면 할수록 기술을 터득해서 수월하게 끝낼 수 있었다. 베트남어와 캄보디아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막을 어디서 끊어야 하는지, 내 마음대로 줄을 바꿔도 되는지가 가장 힘든 결정이었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게 어려웠다. 하지만 자막을 달고 더빙을 넣는 이 작업이 우리의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임무라는 생각이 들어 열심히 할 수 있었다.

봉사활동을 하는 내내 팀원들을 잘 만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팀장님께서 회의를 잘 이끌어 주시고, 매번 좋은 피드백과 아이디어 제시를 해주셨으며, 다른 팀원들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서 봉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팀원들과 자주 만나고, 직접 해외에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다. 만약 다음에도 이화 봉사단을 할 수 있다면 또 지원하고 싶다. 그때는 아이들이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을만한 주제를 선정하고, 직접 아이들을 만나 참여형의 수업을 기획하고 싶다.

---

 서\*신
 

---

나는 평소 기왕 태어난 거, 기왕 사는 거 재미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얘기하고 다니곤 한다. 개인적으로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지만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입학하고서 학교 한 번 못 와봤었는데 이화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학교 사람들과 만나고 바쁘지만 여러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

봉사활동,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내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오던 부분이고, 누구에게나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기회에 내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화에 입학하면 꼭 해보고 싶었던 활동 중에 하나가 이화봉사단 활동이었다. 꼭 해당 국가에 가서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활동하길 너무나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모든 것이 새롭고 또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부터 앞섰다. 그러나 팀원들과 논의하고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모든 상황에 임했다. 여러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팀은 한 팀원이 개인 사정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기존에 예정된 역할 분배를 새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와서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 그럼에도 완벽하진 않지만 기한에 맞추어 해낸 것만해도 충분히 모든 팀원이 고생했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임했기 때문이라 생각해 함께해 준 체육팀 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은 과연 비대면 영상으로 캄보디아와 베트남 어린이들에게 내용이 잘 전달될까 하는 것이다. 과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하는 고민도 계속되었다. 영상 촬영이나 편집적인 부분에 대해 경험이 많이 없었던 터라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캄보디아어 녹음을 해주실 분과는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컸지만, 생각보다 수월하게 일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잘하지는 못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아무래도 전체 물품 배송을 위해 대량 주문을 하다 보니 품질 연락을 늦게 받는 경우가 생겨 예산에 맞는 새로운 구매처를 찾느라 고군분투하기도 하고, 또 한 업무를 마치면 계속해서 다른 이벤트가 발생하는 상황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도 또 다른 일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영상을 통해 잠깐이나마 친구들과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즐기기를 바란다.

---

 김\*영
 

---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진행된 비대면, 해외 교육 봉사는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활동 마무리 후 느낀 뿌듯함이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했다. 봉사 지원을 마음먹기까지, 해외 교육 봉사라는 특성상 언어에 대한 장벽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비대면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이 단점을 다른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며 도전했고, 그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직접 현지의 아이들을 만나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하진 못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 이봉단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고, 미처 알지 못한 나의 부족한 점들을 점검할 수 있었기에 매우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화봉사단 활동은 어느 일반적인 국내 봉사활동과 달랐다. 수업에 이용되는 교안부터 필요한 준비물까지 봉사단원들의 노력이 닿지 않은 부분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봉단은 정해진 틀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틀을 만들고 계획을 세워나가는 단계를 거쳤다. 교재에 아이들을 맞추는 것이 아닌, 수업으로 만나게 될 아이들의 흥미와 학습능력을 고려하며 아이들에게 맞춰나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이었다. 교안 제작, 워크북, 번역,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미술팀은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팀이었다. 일에 대한 부담을 서로에게 미루지 않고 가능하다면 자신이 먼저 나서는 팀원들이었다. 비대면으로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직접 얼굴을 보고 의견을 나눌 수 없었고, 실제 활동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팀원도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팀이었다. 처음 해보는 작업들에 서툰 점도 많았지만 함께 하는 팀원들이 있었기에 마지막까지 탈 없이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원하던 미술팀에서 활동할 수 있어서 기뻐고 이런 팀원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 감사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의 일상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고 나의 능력에 대한 무력함을 느끼며 좌절하는 일 또한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화 봉사단이라는 뜻깊은 기회에 지원을 희망했던 이유 역시 이런 생각의 연장선이었다.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은 포기해야 했지만 화면 너머로 전달될 내용에 더 집중하며 눈을 맞추고자 노력했다. 분명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서니 남은 아쉬움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비대면 교육 봉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짐작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하여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 완성도 있는 준비를 마친 채 아이들과 만나보고 싶다. 희망찬 대학 생활 속에서 내가 받아들여야 했던 무력함은 비록 반갑지 못한 순간이었지만, 이 순간을 이겨낼 계기와 용기를 만들어준 이화에 감사함을 느낀다. 이 배움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자랑스러운 벗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

---

**이\*인**


---

이화봉사단은 학교에 입학해 처음으로 한 교내활동이기에 저에게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시절 내내 해외 교육봉사에 관심이 많았지만, 학업 등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가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해외 교육봉사였는데, 이번 이화봉사단 활동으로 제 목표를 이룬 거 같아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코로나 19를 이유로 아이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게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가 최선을 다했기에 성공적으로 이화봉사단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저희가 의도했던 방향으로 수업을 잘 따라올지 걱정도 되지만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화봉사단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있다면 저희 팀원이 처음으로 대면으로 만난 날이자, 수업 영상을 찍은 날입니다. 이화 그린 색 단복을 입고 직접 수업 영상을 찍는다는 생각에 설렘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좋은 팀원분들과 함께였기에 순조롭게 수업 영상을 촬영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아이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팀원분들과 함께 영상에 들어갈 노래도 녹음하고, 리코더도 부르니 집에서 혼자 계획서를 작성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비대면으로 교육봉사를 해본 것도 처음이었고 회계를 맡아 영수증 정리, 물품 패킹 등을 해본 것도 처음이었지만 혼자가 아니라 팀원분들과 함께였기에 큰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대로 영상을 촬영했던 이번 경험은 교사를 꿈꾸는 저에게 예비교사로서 성장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져 대면으로 봉사를 진행할 수 있길 바라며 기회가 된다면 다음 이화봉사단에도 참가하고 싶습니다.

---

오\*린

---

이화 해외 봉사단이라는 활동은 입학할 하기 전에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활동이었다. 교육 봉사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신청 공고가 뜨자 바로 신청을 하게 되었다.

체육팀에 소속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된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노력하였다. 어찌보면 21학번으로 들어와 처음 해보는 단체 활동, 일명 팀플 활동이었기 때문에 긴장이 되었지만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회의를 진행할수록 적극적인 팀원분들 덕분에 각자 파트를 나누고 활동을 원활히 진행 할 수 있었다.

내가 맡은 파트는 다른 팀원과 줄넘기를 소재로 교안을 짜는 것이었고, 영상 제작 보조 및 번역 담당이었다. 팀원 분도, 나도 봉사단 활동이 처음이었기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될지 막막하긴 했다. 그래서 더 많이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원활히 소통이 되지 않았던 적도 있었지만 서로 많은 의견을 주고받으며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화 해외 봉사단은 내가 처음으로 지원을 해 본 교내 활동이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활동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추후에는 직접 해당 나라에 방문에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모로 의미있는 활동이었다.

# 2021 하계 이화봉사단 해외교육봉사 (캄보디아/베트남) 비대면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봉사팀



2021. 7

---

김\*희

---

저는 패션디자인전공 4학년 김주희입니다. 먼저 학교를 졸업을 하기 전 이화봉사단이라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졸업 후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직업을 가지든 간에 그 직업을 통해 사회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마음에 가지고 나서, 부끄럽게도 한 번도 아동을 돕는 일, 혹은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동을 돕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히 해외 이화봉사단을 모집하는 게시 글을 보게 되어 정말 기쁜 마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화봉사단에서의 경험은 제 비전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하기 전 노력과 시간을 쏟아 아이들을 위한 봉사를 한 것이 또 다른 아이들을 향한 일을 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해외 아동들을 실제로 만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많은 수의 아이들이 저희 팀이 만든 교재와 영상을 가지고 배울 것이라는 생각에 책임감을 가지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업에 있어서도 할 일이 많았고, 이화봉사단 팀원으로서 할 일이 많았지만 교안, 영상, 물품리스트 작성 등의 단계들을 팀원들과 하나씩 해낼 때마다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봉사단을 하며 서로를 위해주는 팀원들을 만나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팀 속에서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저는 팀 내에서 항상 소극적이고 시키는 일만 하던 학생이었는데, 우연히 이화봉사단 미술팀의 리더를 맡아 책임감 있는 태도에 대해 더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한 리더였지만, 제가 리더를 끝까지 해낼 수 있게 해준 성실하고 배려심 넘쳤던 미술팀 팀원 한 명 한 명에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 조\*은

이화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그간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서 이화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만한 활동을 거의 해보지 못한 것 같다.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며 대학 생활을 했던 것 같다. 그러던 와중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봉사 시간을 채워야 했던 때 이후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며, 이화봉사단 활동을 했던 친구들에게 묻기 시작했다. 저마다의 뿌듯함과 추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이화봉사단에 지원해보아야겠다는 결심이 빠르고 쉽게 섰다.

다행인 점은 봉사 내용과 그간 아동 과외를 했던 점이 비슷해서, 억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잘 끝마칠 수 있을 것 같았다. 딱히 준비할 것도 없이 지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게 아이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지원서를 작성한 결과로 봉사단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비대면 봉사라고 해서 솔직히 조금 아쉬웠던 것 같다. 코로나 19로 제약이 생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속상하고, 그에 적응해가는 우리가 신기하기도 하다.

활동 끝자락에 학교에 나가서 해야 했던 활동을 제외하면 봉사단 팀원들과는 온라인 안에서 밖에 만나지 못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한 학기가 넘는 시간동안 봉사단 팀원들과 계속 소통하며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어 유대감과 뿌듯함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나가 팀원들과 짝 교육 프로그램에 맞는 물품들을 패키징하는 과정에서 봉사단 활동이 마무리되었다는 생각으로 2시간이나 소모된 고되다면 고되다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즐겁게 끝마칠 수 있었다. 물품과 워크북을 받고 즐겁게 활동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봉사단 활동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면서, 조금 더 보완하면 좋았겠다하는 아쉬움도 남았다.

누군가의 교육을 위해 계획을 짚다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매번 깨닫는다. 특히 영어나, 내가 잘하는 미술 과목이 아닌 낯선 체육이라는 과목이라서 처음에는 막막했으나 나를 잘 풀어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짝 교안은 첫 번째 스트레칭 부분인데,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시작하고 스트레칭을 자주자주 하게 되면서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며 찌뿌둥한 몸 컨디션도 시원하게 풀어주는 느낌이 좋아서 베트남, 캄보디아 아이들도 자주자주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교안을 짜게 되었다.

모두가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서로 연대하고, 사랑을 통해 난관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더더욱 느껴지는 요즘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화봉사단 활동을 했고, 이를 통해 뿌듯함을 느낀다. 마지막 학기 직전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경험을 준 이화에게도 감사함을 느낀다.



## 최\*은

이화봉사단은 새내기 시절부터 가장 하고싶던 활동 중 하나였다. 봉사 경험이 많지 않아서 나중에 지원해야지 하고 미루던게 3년이 되어 올해 여름에 참여하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에 나가기 어려워졌을 때 해외 봉사는 언제쯤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다. 향후 몇 년은 직접 해외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울 테니 비대면으로라도 꼭 참여해야겠다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사실 지원서를 쓸 때도 자신있진 않았다.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을지 걱정했었다. 하지만 올해는 꼭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고, 베트남/캄보디아 한국문화팀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전공 때문에 교육 봉사를 진행해본 적이 있었지만 그건 한국에서, 직접 만나서 했던 활동이었다. 그래서 비대면 교육 영상을 만드는 것이 처음엔 다소 어렵게 느껴졌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걱정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 수업 주제를 정하는 것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았다. 아이들이 수업이 끝난 후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더운 날씨를 고려해서 부채 만들기 수업을 준비했다. 여러 준비물이 필요해 예산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는데 다행히 예산이 남는 다른 팀에서 구매해주는 것과 같은 해결책이 있어 원하는 준비물을 다 구입할 수 있었다. 전에 교육 봉사를 해보았던 경험은 교안을 작성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다. 평소 말하는 것보다 더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었기 때문에 교안도 그렇게 작성했다. 내용을 어렵더라도 정확히 전달하려 하기보다 어려운 내용은 빼고 쉬운 말로 채우려고 노력했다. 한국문화 수업이지만 교안을 준비하면서 자료 조사를 충분히 해야했고,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내가 특별히 맡은 일은 교안 번역이었다. 영어에 아주 자신 있진 않지만 진로 특성상 앞으로 영어를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맡았다. 영어 교안 역시 쉬운 말로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번역 경험이 많지 않아 어느 정도 의역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됐지만 최대한 원문의 느낌을 살리면서 쉬운 말로 바꾸려 했다. 영어 번역을 맡은 것이 나에게서는 하나의 도전이었는데, 잘 마쳐서 다행이었고 영어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다.

사진을 찍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수업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가 가장 걱정이었다. 스튜디오도 처음 가봤고 이런 영상을 찍어보는 것도 처음이라 많이 쑥스러웠다. 오히려 만나서 수업을 하는 것보다 아이들 없이 영상을 찍는 것이 더 민망하고 힘들었다. 실시간 강의를 선호하시는 교수님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다. 예시를 보여주고 만드는 과정을 찍기 위해 직접 부채 하나를 꾸며야 했다. 오랜만에 하는 미술 활동이라 재밌었다. 색종이를 자르고 그림도 그리니 어릴 때 생각도 났다. 수업을 들을 아이들도 하면서 재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많은 일을 했지만 팀원들이 없었다면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각자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수업 내용을 정할 때부터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서로 피드백도 해주며 보완해나갔다. 워크북 제작, 영상 편집, 회계, 일정 조정 등 해야할 일이 많았는데 각자 맡아서 한 덕분에 무사히 기한 내에 완성할 수 있었다. 성적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모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멋있었다. 이화 안에서도 봉사 정신이 있는 멋진 벗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직접 만나서 함께 활동하는 시간이 적어 아쉬웠다. 기회가 된다면 직접 해외에 나가 벗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김\*지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베트남, 캄보디아 아이들과도, 팀원들과도 대면해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아쉬웠다. 하지만 그만큼 멀리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며, 배려하며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었다고 생각한다. 원활한 비대면 소통을 위해 기술적인 부분에서 수업 동영상 제작, 게시판과 단체, 팀별 채팅방 활용, 온라인 미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각자 미술 수업 아이디어를 몇 가지씩 생각해본 후, 팀원들과 온라인 만남을 가졌다. 첫 시작점이 된 온라인 만남에서 팀원들이 모두 여러 개씩 좋은 의견을 내서, 그 중 어떤 것을 채택해야 할지가 가장 고민이 될 정도였다. 그렇게 성실하고, 적극적인 팀원들과의 첫 만남 느낌 그대로, 우리 조의 활동은 마무리까지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다. 의견을 다듬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아이들이 무엇을 배워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아이디어를 더해갔다.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주제 선정 및 수업 내용 구상, 교안 작성, 수업 대본 작성, PPT 제작, 동영상 제작 및 편집, 워크북 제작 (영어, 베트남, 캄보디아어), 활동 준비물 선정 및 구매, 회계 정리, 준비물 수량체크 및 패킹 등의 업무를 맡았다. 학기와 병행하다보니 어려움도 있었으나, 미리 마감일과 업무 단계를 계획하고, 팀 안에서 각자의 업무를 적절히 분담하여 배분하고, 맡은 바에 열심히 임해주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팀원들에게도 매우 고맙고, 좋은 팀원들을 만나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었다. 대면 업무에서 팀원들을 봤을 때도 오래 만난 친구들처럼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재미있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중에서도 워크북 대표를 맡아 각 팀의 워크북 대표들과도 협업을 진행했는데, 워크북 형식 통일, 업무 분담(워크북에 사용할 그림 제작, 배치) 등을 의논하고, 세부 내용을 다시 각 팀으로 전달했다. 전체 진행 일정에 맞춰, 워크북 팀 안에서의 새롭게 세부 일정 계획을 세워 진행했기에 더욱 순조롭게 진행했다. 제작 시, 관련 있는 도안 선정 및 디자인, 각 그림과 도안 등을 다른 팀들과 통일된 곳에 배치하는 수작업이 어려웠으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서로의 해결책을 공유하고, 도와주고, 새롭게 공통 기준을 정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업무 속도가 빨라졌다. 적극적으로 임해준 각 팀의 워크북 대표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고, 함께한 모든 팀원들과 일하며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를 새롭게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업무가 여러 전공 분야 사람들과의 협업과 분담, 소통과 피드백,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으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배웠다.

수업 내용 구상 전 준비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미술 교과 내용(다양한 미술 기법 등)을 조사하고, 전공수업 등에서 실제로 내가 해보고, 배웠던 내용들을 연계하여 응용했다. 이전 봉사단의 활동 내용과 연계하기 위해 고민했고, 미술 놀이 소개 콘텐츠를 참고하여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베트남, 캄보디아 학생들이 재미있게 즐기면서, 직접 다양한 활동을 하며 배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때, 이해도를 높이는 그림과 직접 시연한 동영상, 사진 등을 PPT 및 동영상, 워크북에 제공했다. 점묘화, 프로타주, 데칼코마니 등 각각의 다양한 미술 기법들을 사용한 세부 활동을 선정할 때, '나'와 나의 주변에 대해 돌아보고, 표현해볼 수 있도록 하나의 주제와의 연계성을 고민하는 과정이 어렵기도 했지만, 최종 완성 후에는 큰 보람을 느꼈다. 교안의 학습 목표에서 지식, 기술, 태도를 골고루 고려했고, 도입에서는 주의집중을 돕도록 학생들과 관련 있는 이야기, 관련 동영상 등 매체 활용을 고민했다. 베트남, 캄보디아 어린이들과 직접 보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지만, 계속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돌아보며 흥미와 배움을 고민했기에, 활동이 진행될수록 마음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

**최\*지**


---

이화를 떠나기 전, 학교에서의 배운 지식을 사회에 나눠보고 싶어 해외 이화봉사단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악 전공이지만, 평소에 음악을 주제로 봉사를 해 볼 기회가 별로 없어 아쉬웠습니다. 따라서 해외 이화봉사단 음악팀에서 수업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했을 때는 봉사를 위해 굉장히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보였기에 과연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해나갈 수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평소 주도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팀장으로서 우리 팀을 잘 이끌어 이 많은 것을 모두 제대로 끝낼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며 부담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주신 팀원들 덕분에 무사히 동영상과 워크북, 교안을 완성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교직을 이수하고 있어 평소 음악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해외 교육 봉사이다 보니 우리나라의 환경과는 다른 곳에서 수업을 듣게 될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사회적, 교육적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일 것이기에 이런 것은 학생들이 너무 지루해할까, 어려워할까 고민하며 수업 내용을 구성해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계획했지만, 비대면 상황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음악에 더 흥미를 갖고, 더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 팀원들과 수업을 만들어가니 막막하기만 했던 것에서 조금씩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지만 주어진 수업 시간이 적어 조금 아쉽기도 했고, 비대면 봉사라서 학생들과 실제로 소통하며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들이 모여 마지막에 다 같이 모여서 성공적으로 수업을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화에서 생활한 지난 시간 동안에는 대학생이라는 신분에 맞게, 학과 공부에 충실히 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화봉사단을 하며 저에게 당장 닥친 것에서 잠시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현실의 문제들을 고민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해외 이화봉사단을 시작할 때는 무사히 봉사를 끝낼 수 있을까, 설렘보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팀원들과 열심히 만든 수업, 워크북, 동영상 등을 보니 짧은 기간이었으나 많은 것을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비대면 봉사이기에 팀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친분을 쌓을 기회가 별로 없어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한 학기동안의 이화 봉사단 활동은 힘든 만큼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학생들 모두 저희의 수업에 즐겁게 참여하고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경
 

---

나는 4학년이지만 학교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은 이화봉사단 활동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많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컸었다. 그렇지만 다행히 팀원분들도 다들 너무 착하신 분들이었고, 배려심 있는 분들이었기에 팀원들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하는 일 없이 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활동을 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정말로 아이들이 있는 나라에 가서 함께 마주 보며 이야기하고, 유대감을 쌓으면서 활동을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이 팀원분들과도 더 오래 인연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 또한 컸다. 언젠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 걱정이 되지 않을 때 즈음엔 꼭 해외로 봉사하러 가봐야 겠다는 목표도 생겼다.

활동을 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점을 꼽으라면 나는 편집 담당이었기에 편집에 대해 말하고 싶다.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이렇게 세 나라의 언어를 총 5명의 영상을 편집하고, 캄보디아어는 음성녹음 파일까지 편집해야 해서 사실 조금 힘들었지만 기간이 촉박하진 않았기에 많이 힘들진 않았다. 한 명이 아닌 두 명에서 했다면 덜 스트레스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영상 편집하는 과정을 몇 번 반복 하다 보니 편집하는 속도가 처음보다 훨씬 빨라지기도 해서 시간이 많이 절약되기도 했다. 편집을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나할까.

마무리하자면, 다음에도 이화봉사단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땐 지금보다 더 여유롭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 새로운 인연을 쌓는 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나와는 다른 전공, 과의 사람들과 인연을 쌓고,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어 좋았다.

---

**김\*정**


---

처음에는, 비단 내가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만 생각하여 이화 봉사단에 지원하였다. 특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직접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관심이 많은 분야인 공공외교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문화를 올바르게 재밌는 방식으로, 단순히 유럽과 같은 서양 국가 뿐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제3 세계 국가의 아이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으로 다가온 활동이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몇몇 봉사활동들과 확실히 달랐던 점은, 나 또한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인 것 같다. 특히 처음 교안을 짜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가래떡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모양인지를 언급하지 않고 가래떡이라는 표현을 그냥 사용했다. 이처럼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아이들이 가래떡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너무 당연히 알고 있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생소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 깨닫게 되고, 나아가 그들과 시각을 같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던 시간이었고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단순히 문화권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어린 아동들이 가진 시각에 대해서도 함께 조율할 수 있었다. 특히 워크북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설명해주고자 많은 문자, 글자를 넣었던 것이, 되려 문자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복잡한 책처럼 보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한국 문화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좀 더 넓고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방식과 시각에 대한 교훈을 얻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내용적 측면이 아닌 팀 활동으로 진행했다는 측면에서 역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팀장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팀장이라는 역할도 팀을 이끌어나가는데 중요하지만 좋은 팀원들이 받쳐 주어야 되어야 비로소 팀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던 것 같다. 사실 처음에 역할분담을 할 때 우리 팀에는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팀원이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서로가 조금씩 도와주기로 하면서 끝끝내 역할 분담을 완료하였고, 실제로 영상 촬영을 다 진행하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그 팀원을 도와주었다. 그 덕분인지 생각보다 수월하고 빨리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점도 있다. 한국문화라는 주제를 처음 다루었고, 그 대상이 아이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조금 더 시의성 있는 주제를 많이 다루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물론 대상이 다른 문화권의 아동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한국에서 유행하는 달고나 커피 만들기와 같은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실효성의 측면에서는 어렵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서서히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시의적인 문화에 대해 알린다면 그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해 더 큰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다.

물론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마주하고 그들의 체험을 직접 도우며 그들의 교육적 측면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접 접촉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아가서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의 활동이자 봉사자였다고 생각한다.

---

 김\*빈
 

---

이화 봉사단 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이파리가 수줍은 초록빛을 띄는 초봄이었는데, 벌써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이 왔다. 숨 가뻐던 이화 봉사단 활동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어느덧 활동 소감문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게 새삼 신기하고 또 감사하다. 이 소감문을 통해 이화 봉사단 활동을 되짚어 보며 배우고 느낀 점을 성찰하고자 한다.

이화 봉사단 활동을 처음 신청할 때, 지원서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 “이화 봉사단에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나는 막힘없이 답변을 술술 적었다. 나는 1,2 학년 때 학교에 정을 못 붙이고 많이 방황했었다. 열등감, 패배감, 우울, 분노를 매일 심하게 겪었고 이러한 감정을 잊으려고 미친 듯이 바쁘게 살았다. 수업을 듣고, 불티나게 과제를 하고, 알바를 뛰고, 과외를 하고... 정말 바쁘게 지내는 도중 어느덧 내가 졸업을 앞둔 3학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학생으로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대학생답게’ 무언가 즐긴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 남지 않은 대학생으로서의 시간 동안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 대학생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한 열정과 패기로 도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나는 이 내용을 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적었고 감사하게도 합격하여 이화 봉사단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화 봉사단 활동을 시작하면서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 교안을 짜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다. 열심히 연구하고 고안하여 활동을 구성해도 여러 이유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얻었고, 컴퓨터를 가뜰이나 잘 못하는데 워크북 제작을 맡게 되면서 계속 헤매고 킁킁대었던 것 같다. 그리고 계속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생겨서 여러모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동료 분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서로 으싸으싸 동기부여를 하면서 난관들을 하나씩 넘어갔다. 활동 하면서 좋은 동료 분들도 알게 되고, 컴퓨터 실력이 조금은 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고민 없이 동영상 촬영하는 시간이었다고 답할 것이다. 처음으로 동료 분들을 실물로 만나 배서 동영상 촬영했는데,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수도도 떨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겁게 동영상을 제작했다. 나는 체육팀이어서 몸소 워크북의 신체 활동들을 보여 주어야 했는데 생각보다 활동이 까다로워서 NG도 많이 났지만 팀원 분들과 즐겁게 웃으며 넘겼던 것 같다.

이후 워크북 담당으로서 마지막 수정, 보완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마무리 단계를 거쳐 드디어 이렇게 이화 봉사단 활동을 정리하는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생각해 보니 정말 숨 가쁘고, 바쁘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좋은 동료분들과 지도 선생님 덕분에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활동을 통해 배려와 봉사, 나눔의 정신을 배우고 좋은 동료 분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다. 이화 봉사단 활동에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김현빈이 되겠다.

---

 김\*빈
 

---

꿈에 그리던 대학에 입학하고 뭐든 다 해낼 것만 같았던 1학년 새내기 시절, 마냥 놀기만 바빠서 학교에서 주최하는 것들을 알지도 못 했을뿐더러 시도해 보지도 못 하였다. 정신없이 2년을 보내고 3학년이 된 지금에서야 학교 행사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과 선배님께서 이화 해외 교육봉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해보아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 RCY 단장으로서 봉사 동아리를 하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 단단한 각오와 함께 지원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하계 이화봉사단으로써 활동 할 수 있게 되었다.

스포츠과학과가 나만 있어서 그랬는지 체육팀으로 배정받게 되었다. 열정을 가득 안고 오티를 듣게 되었고, 팀별 활동을 하려고 역할을 정하게 되었는데 내가 팀장으로 선정되었다. 솔직히 말하면, 직접 가서 봉사활동 하는 것을 기대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지만, 교안 작성하는 것부터 물품리스트 작성 그리고 직접 패킹까지 하는 모든 과정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 교안을 작성할 때 막막했다. 비대면인 신체활동이고, 여러명과 같이 활동을 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 것 같아 여러 가지의 것들을 고려하여 교안을 작성해야했다. 그래서 몇 번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여 최종 교안이 완성되었다. 교안을 작성하고 나니 반은 한 것 같아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이후 물품리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팀원이 많이 도와주어 쉽게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비록, 5명의 팀원 중 한 분이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인해 중간에 활동을 중단하게 되어서 너무 안타까웠다.

봉사 패킹까지 마친 후 느낀점은 한 명에서 하지 못 하는 것을 여러명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구나 라는 뿌듯함이었던 것 같다. 팀원들이 다들 배려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화 해외 교육 봉사를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해외 교육 봉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패킹 작업이었던 것 같다. 최종 작업을 하면서 직접 개수를 맞추어 하나씩 패킹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제 다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 끝에 서로 도우며 교안 작성부터 다양한 활동들을 팀원들이 힘을 모아서 헤쳐나갔던 것 같다. 이화봉사단 활동을 통해 연대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 이런 뿌듯하고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을 남겨준 이화여대가 자랑스롭다.

## 반\*영

이화봉사단은 나에게 의미 깊은 활동이다. 나는 국내 이화봉사단 활동을 시작으로 총 3차례 이화봉사단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매 활동마다 대상자 간에 그리고 이화봉사단원들 간에 많은 추억들을 간직했기 때문에 졸업 전 마지막 활동으로 해외 봉사를 해보고 싶었다. 따라서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나는 매우 기뻐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번학기 역시 봉사활동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점이었다. 지난 이화봉사단은 비대면으로 진행된 첫 학기였다. 이에 따라 팀원들도,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혼돈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은 다소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선생님께서도 명확하게 역할 분담을 해주시고, 가장 고학년을 팀장으로 배정함으로써 팀활동의 진행이 더 매끄럽게 된 거 같다.

한국문화라는 주제 하에 어떤 주제로 수업을 해야 아이들이 재미있게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였다. 팀원들끼리 각각 아이디어를 내어 투표를 하였고 나는 그 중 전통놀이를 맡게 되었다. 주제 선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우리 팀원들은 한국 문화를 과거의 한국 문화와 전통에 초점을 두었는데 선생님께서는 현대판을 생각하셨던 것이다. 결국 우리는 과거와 현대를 잇는 방식으로 교안을 수정하였다. 사실 이 부분에서 드는 아쉬움은 교안을 짜기 전에 한국문화를 현대판으로 생각했더라면 21세기의 한국의 모습을 더욱 잘 전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아이들은 현 시점 한국의 아이들이 어떤 놀이들을 하는 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우리 조는 다소 과거에 초점을 둔 점이 아쉬웠다.

나는 아이들이 한국의 놀이 문화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직접 체험해보는 방향으로 교안을 작성하였다. 처음에는 다양한 놀이들을 설명해주고 싶었지만 이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다소 지루할 수도 있고, 직접 해 보는 것이 아니라면 와닿을 거 같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퀴즈 형식을 택하였다. 이렇게 간단히 한국 문화를 설명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딱지치기에 대해 소개를 했다. 처음에는 제기차기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시중에 판매를 하는 제기들은 불량인 경우도 많았고 아이들이 이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수반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딱지치기의 방법을 배우고 현대판 딱지를 이용하여 직접 놀이를 해 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아쉬운 점은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것이 아니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잘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점이었다. 선생님들께서 딱지치기를 모르시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실 수 있을지, 아이들이 차분하게 게임을 할지 걱정이 들었다.

비대면 봉사였음에도 팀원들끼리 만나서 영상 촬영한 점은 무척 좋았다. 이는 유일하게 팀원들끼리 협업을 하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비록 두 번밖에 못봐서 아쉽기는 했지만 수업 촬영을 같이 한다는 데에는 큰 의미가 담겨있는 거 같다. 지난번 활동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촬영까지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영상을 통일 시키는 것도 어려웠으며 영상에 애정을 담는 것도 그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충분한 토의 후에 완성된 교안으로 일정한 포맷에 따라 함께 촬영을 해서 호흡도 더 잘 맞고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다.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 대상자들과 봉사팀원들 같다. 이번에는 아쉽게 대상자들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팀원들을 잘 만난 거 같아서 너무 감사했다. 각자가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줬으며, 비대면 상황임에도 줌으로 회의를 하고 촬영날 모두 오는 등 상황을 최대한 극복해 보려는 노력들을 해 주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기회가 된다면 졸업을 하기 전에도 그리고 졸업 후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 봉사의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기 때문이다. 봉사가 일시적인 활동이 아닌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

 오\*돌
 

---

입학할 때 자기소개서에 썼을만큼 정말 하고싶었던 이화봉사단.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봉사활동을 기획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모집 공고가 뜨자, 설레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썼고 감사하게도 합격하여 이화봉사단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비대면으로 채울 수 있는 장점들이 마음껏 발휘되었던것 같다. 직접 가서 얼굴을 마주하고 시연하지는 못하더라도, 워크북과 영상을 통해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팀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주제에서부터 세부적인 활동들까지를 같은 팀원들끼리 정하며 교안을 작성했다. 그리고 나는 우리팀 내에서 워크북 담당이어서 음악팀 내지를 제작했고, 그리고 워크북 표지도 담당해서 제작했다.

처음 줌으로 회의를 했을 때부터 느꼈지만, 우리 음악팀은 팀워크가 참 잘 맞았다. 모든 팀원분들이 언제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고, 피드백도 빠르게 해주셔서 전반적으로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교안을 제작할 때에는 현지 선생님께서 이 교안과 영상만 보시고도 수업을 잘 진행하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다. 작은 디테일들도 꼼꼼하게 서로 살펴주며 교안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수업 시연 영상을 찍을 때 학생이 실제로 내 앞에 있지는 않지만, 학생이 내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시연하였다. 여러 번 연습해가며 외웠는데, 막상 찍으려니까 그곳의 자동 촬영 기기들을 보며 '드디어 그동안 준비한 수업을 찍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긴장이 되어 여러 번 찍게 되기도 했다. 한편 워크북 표지를 담당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어린 학생이었을 때의 나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나는 어렸을 때 교과서 표지가 마음에 들면 책에 관심이 가고 나도 모르게 책을 한 번이라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학생들도 책에 애정을 갖게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표지 만드는 것을 담당하게 되었다. 막상 표지를 제작하려고 보니 어떤 것을 담으면 좋을지 고민이 되었다. 단순히 보기에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한국문화팀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담기면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각 팀의 교안들을 확인해서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들(음계 무지개, 나비를 그리는 아이, 줄넘기하는 아이, 그리고 단청무늬)을 그려 넣게 되었다. 이렇게 교안, 시연 영상, 워크북까지 처음부터 기획하며 제작할 수 있어 기뻐다.

4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차근차근 진행해왔던 이화봉사단이 이제는 마무리하는 단계라니! 아쉬우면서도 뿌듯하다. 학생들이 수업 영상과 워크북을 통해 즐겁게 배울 수 있다면 기쁠 것 같다.

---

**배\*서**


---

해외봉사활동은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고 내가 다른 조원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좋은 팀원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바쁜 와중에도 학교 수업, 과제, 봉사 활동들을 병행하는 것이 저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고 제가 질문이 있거나 작업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피드백을 주시는 저희 팀 조원들에게 감동을 받아서 팀에 도움이 되고자 더 열심히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이화여대 하계 해외 봉사활동은 제가 직접 무언가를 계획하고 만들어보았던 자율적인 성격을 가진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같은 조의 다양한 팀원들과 토론하며 이야기하며 더 좋은 퀄리티의 활동을 만들어 나가던 시간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 OT에서 담당 선생님께서 한 학기간의 여정을 설명해주실 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각자 맡은 바 업무를 나누고 작업들을 차근차근 해내다보니 어느새 저희가 완성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는 점이 너무 뿌듯합니다. 물론 직접 해외에 나가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수업을 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도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다른 의미로 저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접 누군가를 대면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형태로든 봉사 활동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

 오\*경
 

---

저는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20학번 오민경입니다. 한국에서 비대면으로도 해외의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해외봉사단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화봉사단 자체가 저에겐 처음이라, 합격하고 나서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긴장과 걱정도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팀원들을 만나 무사히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학기 중에 봉사단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과제와 시험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교안 내용을 구상하고, 교안을 영어로 번역하고, 워크북에 들어갈 자료를 찾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참여하는 팀원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자극 받고 도움 받아 이렇게 끝까지 봉사단 활동을 끝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사히 끝냈다는 사실이 저를 매우 뿌듯하게 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누굴 가르쳐본 적도 없고, 교육과 관련된 학과도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였습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아이들을 위한 영상을 찍을 때도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하다보니 익숙해졌고, 마지막에는 팀원 모두가 진짜 선생님처럼 무사히 잘 해낸 것 같습니다. 학기 중에 봉사단 활동을 한다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냈다는 뿌듯함이 존재합니다. 다음에도 꼭 봉사단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

**최\*빈**


---

2020년 겨울 국내 이화봉사단을 한 후, 해외 봉사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해외 이화봉사단을 신청했습니다. 비대면이라 시간, 공간의 제약이 크지 않아 용기를 내 신청했고, 다행히도 해외 봉사단에 뽑혀 새로운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국내 봉사보다 힘들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우선 국내봉사단보다 활동을 일찍 시작해 학교에 다니면서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물론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은 없었지만 팀별로 수업 내용도 짜고, 워크북도 만들고, 예산을 고려해 수업을 구성해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쁘게 봉사활동과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나름 저만의 노하우도 생기고 시간을 잘 쪼개서 쓰는 법과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전 학기보다 성적이 떨어지긴 했지만,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힘든 것이 있었다면 영상을 편집하고 영어 자막, 베트남어 자막, 캄보디아어 자막과 더빙 영상을 만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동계 국내 이화봉사단에서 동영상 편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제가 영상을 편집했었는데 그때 나름대로 편집이 재밌고 쉬운 것 같아서 이번에도 지원자가 없길래 제가 영상 편집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편집뿐만 아니라 3개 국어 자막을 달아야 하고 거기에 캄보디아로 가는 영상에는 더빙까지 넣어야 해서 종강한 이후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혼자 감당하기에는 양이 꽤 많아서 부지런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저의 한계를 깨고 더 앞으로 나아간 것만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없었을 것만 같은 일을 결국에는 해냈을 때 쾌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영상 편집을 다 끝내고 사이버 캠퍼스에 영상을 올렸을 때 속이 후련하면서 '내가 정말로 해냈구나!'라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2021년 하계 해외 이화봉사단을 하면서 저 스스로 많이 성장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팀원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제가 편집으로 힘들어할 때도 마치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 맡은 부분을 넘어서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면서 했기에 팀 내 불화도 없고 다들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좋은 추억과 인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팀장으로서 미술팀을 하나로 이끌어주고 가장 많이 애써준 주희 언니, 워크북 만드느라 엄청나게 고생한 예지 언니, 영어 번역에 힘써준 현서, 회계와 물품 구매 꼼꼼하게 해준 아영까지 모두 고맙고 덕분에 즐겁게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놈펜, 씨엠립,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이 저희가 몇 달간 열심히 만든 수업 재밌게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유년 시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보내고 나중에 커서 행복한 자신만의 인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화봉사단에 다시 참가하고 싶습니다. 몇 개월간 정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

 홍\*연
 

---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코로나 19 확산으로 제대로 된 대학생활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상황과 현실만을 탓하며 시간만 허비한 날도 많았다. 이렇게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치 있는 활동들을 몇몇 찾아보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화봉사단 해외교육봉사단이었다. 비록 직접 해외로 나가서 지식을 전달해주고 활동을 진행하며 교류를 할 수는 없어도 동영상과 워크북을 직접 제작하여,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한국을 알려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다.

예전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짧게 한국을 소개하는 물품을 제작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봉사분야는 올해 신설된 한국문화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미 학생들이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있기에 심화 과정을 구성해야 하는 다른 과목들과는 달리, 한국문화는 처음부터 교안을 짜야했기 때문에 팀원들과 여러 번 회의를 하면서 어느 부분이 매력적으로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인지 의견을 나누었다. 모든 조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쉽게 의견을 간추릴 수 있었다. 이렇게 외국인과 나이가 어린 학생의 입장에서 음식, 의복, 명소, 전통놀이 등 한국적인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5주차 수업의 틀을 마련한 뒤에는 효과적이고 재미있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교안도 직접 작성하였다. 단순히 설명글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을 모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여러번 교안을 읽어보고 수정해가면서 한국문화 수업의 전체적 통일성과 각 차시별 독특함을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나는 마지막 차시인 한국명소 부분을 맡았는데 한국의 관광 지도를 참고하면서 대표적인 문화 및 자연 명소인 경복궁과 제주도를 소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남산타워, 한강, 해운대 등 다양한 후보 중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어디를 가장 와보고 싶어하는지 검색해가면서 최종 명소를 추려냈고, 그 과정 속에서 평소에는 잊고 있었던 한국의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교안을 작성할 때는 쉬운 언어를 사용해서 장소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설명하고자 했고, 지역적 특색을 살린 활동으로 단청 색칠하기, 유채꽃 엮서에 편지 쓰기를 수업 내용에 포함시켰다. 다른 차시에 비해서 학생들이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이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모든 팀원들이 공통으로 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조장, 회계, 워크북, 번역, 동영상 편집 등 다른 봉사분야의 부원들과도 협력 또한 필요했는데, 이 과정 또한 기억에 많이 남는다. 워크북 담당자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부분들에 디자인이 필요한지 의논하고 역할을 분배한 뒤, 글꼴, 자간, 여백 등 사소한 부분까지 맞춰가고, 여러번의 피드백을 통해 완성도 있는 워크북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주어진 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수업의 목표를 제시하는 처음부터 끝인 영상 촬영까지 팀원들과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갔다는 점이 가장 보람차게 느껴진다. 또한 10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들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번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비록 코로나 19로 인해서 오프라인 활동이 많지 않아 아쉬웠지만, 소통이 적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교육의 혜택으로 받은 지식들을 상대적으로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사람과 나눔으로써 의미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직접 해외로 나가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해보고 싶다.

---

 김\*은
 

---

해외 이화 봉사단은 내가 입학하기 전부터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었다. 직접 해외에 나가 아이들에게 교육봉사를 하는 게 나의 꿈이기 때문에 정말 바라왔던 활동이었는데,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나 기뻐다. 이번 학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 해외에 가서 봉사하지는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직접 교안을 작성하고, 워크북을 제작하고, 수업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교안을 작성하는 내내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울까를 계속 생각했다. 나는 이번 연도에 새로 생긴 한국문화팀 소속이어서 참고할만한 이전의 수업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지만, 아이디어가 넘치는 팀원들이 있던 덕분에 봉사활동이 생각했던 것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한국문화 수업으로 음식, 의복, 전통놀이, 부채, 명소를 주제로 설정하였고 그 중에 나는 한국의 전통의복인 한복을 맡게 되었다. 한복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복을 입고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내었고, 전통 한복만 설명하는 것이 아닌 개량 한복을 설명해주어 현재도 한복을 입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기로 하였다. 사실 수업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과연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었다. 다른 주제에 비해 '한복'이라는 주제는 아이들에게 잘 와 닿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이 직접 입어보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없으니 더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업 첫 부분에서 한복을 직접 입고 인사를 하는 수업 영상을 찍었고, 수업 내용 중에 아이들이 여러 한복 사진을 보고 자신만의 한복을 꾸밀 수 있는 색칠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처음에 팀원들과 역할을 분담했었는데, 나는 영상제작을 맡게 되었다. 먼저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편집하였고, 베트남 자막을 넣고, 캄보디아 자막을 넣고, 캄보디아 더빙을 넣었다. 원래는 영문 자막도 넣어야 하지만 팀장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일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나는 영상을 다루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영상을 제작하는 것부터 막막했지만, 팀원들이 합치기 쉽도록 수업 영상을 잘 찍어준 덕분에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었고, 자막은 말 한 마디에 맞추어 넣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하면 할수록 기술을 터득해서 수월하게 끝낼 수 있었다. 베트남어와 캄보디아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막을 어디서 끊어야 하는지, 내 마음대로 줄을 바꿔도 되는지가 가장 힘든 결정이었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게 어려웠다. 하지만 자막을 달고 더빙을 넣는 이 작업이 우리의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임무라는 생각이 들어 열심히 할 수 있었다.

봉사활동을 하는 내내 팀원들을 잘 만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팀장님께서 회의를 잘 이끌어 주시고, 매번 좋은 피드백과 아이디어 제시를 해주셨으며, 다른 팀원들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서 봉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팀원들과 자주 만나고, 직접 해외에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다. 만약 다음에도 이화 봉사단을 할 수 있다면 또 지원하고 싶다. 그때는 아이들이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을만한 주제를 선정하고, 직접 아이들을 만나 참여형의 수업을 기획하고 싶다.

---

 서\*신
 

---

나는 평소 기왕 태어난 거, 기왕 사는 거 재미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얘기하고 다니곤 한다. 개인적으로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지만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입학하고서 학교 한 번 못 와봤었는데 이화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학교 사람들과 만나고 바쁘지만 여러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

봉사활동,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내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오던 부분이고, 누구에게나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기회에 내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화에 입학하면 꼭 해보고 싶었던 활동 중에 하나가 이화봉사단 활동이었다. 꼭 해당 국가에 가서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활동하길 너무나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모든 것이 새롭고 또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부터 앞섰다. 그러나 팀원들과 논의하고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모든 상황에 임했다. 여러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팀은 한 팀원이 개인 사정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기존에 예정된 역할 분배를 새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와서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 그럼에도 완벽하진 않지만 기한에 맞추어 해낸 것만해도 충분히 모든 팀원이 고생했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임했기 때문이라 생각해 함께해 준 체육팀 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은 과연 비대면 영상으로 캄보디아와 베트남 어린이들에게 내용이 잘 전달될까 하는 것이다. 과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하는 고민도 계속되었다. 영상 촬영이나 편집적인 부분에 대해 경험이 많이 없었던 터라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캄보디아어 녹음을 해주실 분과는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컸지만, 생각보다 수월하게 일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잘하지는 못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아무래도 전체 물품 배송을 위해 대량 주문을 하다 보니 품질 연락을 늦게 받는 경우가 생겨 예산에 맞는 새로운 구매처를 찾느라 고군분투하기도 하고, 또 한 업무를 마치면 계속해서 다른 이벤트가 발생하는 상황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도 또 다른 일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영상을 통해 잠깐이나마 친구들과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즐기기를 바란다.

---

 김\*영
 

---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진행된 비대면, 해외 교육 봉사는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활동 마무리 후 느낀 뿌듯함이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했다. 봉사 지원을 마음먹기까지, 해외 교육 봉사라는 특성상 언어에 대한 장벽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비대면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이 단점을 다른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며 도전했고, 그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직접 현지의 아이들을 만나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하진 못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 이봉단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고, 미처 알지 못한 나의 부족한 점들을 점검할 수 있었기에 매우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화봉사단 활동은 어느 일반적인 국내 봉사활동과 달랐다. 수업에 이용되는 교안부터 필요한 준비물까지 봉사단원들의 노력이 닿지 않은 부분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봉단은 정해진 틀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틀을 만들고 계획을 세워나가는 단계를 거쳤다. 교재에 아이들을 맞추는 것이 아닌, 수업으로 만나게 될 아이들의 흥미와 학습능력을 고려하며 아이들에게 맞춰나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이었다. 교안 제작, 워크북, 번역,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미술팀은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팀이었다. 일에 대한 부담을 서로에게 미루지 않고 가능하다면 자신이 먼저 나서는 팀원들이었다. 비대면으로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직접 얼굴을 보고 의견을 나눌 수 없었고, 실제 활동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팀원도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팀이었다. 처음 해보는 작업들에 서툰 점도 많았지만 함께 하는 팀원들이 있었기에 마지막까지 탈 없이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원하던 미술팀에서 활동할 수 있어서 기뻐고 이런 팀원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 감사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의 일상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고 나의 능력에 대한 무력함을 느끼며 좌절하는 일 또한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화 봉사단이라는 뜻깊은 기회에 지원을 희망했던 이유 역시 이런 생각의 연장선이었다.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은 포기해야 했지만 화면 너머로 전달될 내용에 더 집중하며 눈을 맞추고자 노력했다. 분명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서니 남은 아쉬움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비대면 교육 봉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짐작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하여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 완성도 있는 준비를 마친 채 아이들과 만나보고 싶다. 희망찬 대학 생활 속에서 내가 받아들여야 했던 무력함은 비록 반갑지 못한 순간이었지만, 이 순간을 이겨낼 계기와 용기를 만들어준 이화에 감사함을 느낀다. 이 배움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자랑스러운 벗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



---

**이\*인**


---

이화봉사단은 학교에 입학해 처음으로 한 교내활동이기에 저에게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시절 내내 해외 교육봉사에 관심이 많았지만, 학업 등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가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해외 교육봉사였는데, 이번 이화봉사단 활동으로 제 목표를 이룬 거 같아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코로나 19를 이유로 아이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게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가 최선을 다했기에 성공적으로 이화봉사단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저희가 의도했던 방향으로 수업을 잘 따라올지 걱정도 되지만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화봉사단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있다면 저희 팀원이 처음으로 대면으로 만난 날이자, 수업 영상을 찍은 날입니다. 이화 그린 색 단복을 입고 직접 수업 영상을 찍는다는 생각에 설렘이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좋은 팀원분들과 함께였기에 순조롭게 수업 영상을 촬영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아이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팀원분들과 함께 영상에 들어갈 노래도 녹음하고, 리코더도 부르니 집에서 혼자 계획서를 작성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비대면으로 교육봉사를 해본 것도 처음이었고 회계를 맡아 영수증 정리, 물품 패킹 등을 해본 것도 처음이었지만 혼자가 아니라 팀원분들과 함께였기에 큰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대로 영상을 촬영했던 이번 경험은 교사를 꿈꾸는 저에게 예비교사로서 성장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져 대면으로 봉사를 진행할 수 있길 바라며 기회가 된다면 다음 이화봉사단에도 참가하고 싶습니다.

---

오\*린

---

이화 해외 봉사단이라는 활동은 입학하기 전에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활동이었다. 교육 봉사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신청 공고가 뜨자 바로 신청을 하게 되었다.

체육팀에 소속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된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노력하였다. 어찌보면 21학번으로 들어와 처음 해보는 단체 활동, 일명 팀플 활동이었기 때문에 긴장이 되었지만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회의를 진행할수록 적극적인 팀원분들 덕분에 각자 파트를 나누고 활동을 원활히 진행 할 수 있었다.

내가 맡은 파트는 다른 팀원과 줄넘기를 소재로 교안을 짜는 것이었고, 영상 제작 보조 및 번역 담당이었다. 팀원 분도, 나도 봉사단 활동이 처음이었기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될지 막막하긴 했다. 그래서 더 많이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원활히 소통이 되지 않았던 적도 있었지만 서로 많은 의견을 주고받으며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화 해외 봉사단은 내가 처음으로 지원을 해 본 교내 활동이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활동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추후에는 직접 해당 나라에 방문에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모로 의미있는 활동이었다.